

# '내면의 어둠' 응시하는 한 소년의 시선

만화가 강모림씨가 뽑은  
J.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사소해 보이는 것 속에서 비범한 것을 끌어내는 작가의 재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호수가 얼면 오리는 어디로 갈까?' 하고 주인공이 묻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참 별나다. 천변(千變)하고 만화(萬化)해 도시 종잡기 어렵다. 편두통처럼 집요하게 쪼아대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도둑고양이처럼 불쑥 나타나 소스라치게 하는 기억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곰삭은 짓갈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은은해지는 기억도 있거 마련이다. 처음 맛닥뜨렸을 때는 시큰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기억 말이다.

만화가 강모림씨(31)가 그랬다. 그에게 J.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덕형, 문예출판사)은 뒤늦게 그의 '기억창고'에 들어섰지만 감동의 빛은 해가 갈수록 더해오는 책이었다. 그는 중학생 시절 이 책을 처음 만났다. 언니의 은근한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읽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니 그의 솔직한 독후감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당시 또래들 사이에선 유행 비슷했거든요. 다시 읽고 난 후에도 여전히 덤덤했죠. 잘 씌어진 한편의 동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책의 내용이 자꾸 떠오르더라구요. 특히 33 페이지 책의 내용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가 '현대문학의 최고봉'이라고 격찬했던 이 책은 학교에서 퇴학당한 열여섯살 소년 홀든 콜필드의 방황과 고뇌를 그린 작품. 물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속물적인 세계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순결하게 살고 싶다는 소년의 외침이 서정적 문체 속에 녹아 있다. 강씨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면의 어둠을 그려낸 작가의 탁월한 묘사력이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는 내면세계를 깊이 파헤친 작품이 드물었어요. 하지만 이 책은 달랐어요. 사회와 제도에 순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내면이 섬세하게 포착됩니다. 주인공은 허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순수함이 있었죠."

강씨는 1991년 <고니의 몽상일기>로 만화잡지 《르네상스》 공모전에 당선해 만화계에 입문했다. 지난 98년에는 《달래하고 나하고》(시공사)로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박하면서도 정감어린 일상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가 지향하는 만화는 홀든 콜필드의 내면과 그리 멀지 않다.

"사소해 보이는 것 속에서 비범한 것을 끌어내는 작가의 재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호수가 얼면 오리는 어디로 갈까?' 하고 주인공이 묻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박천홍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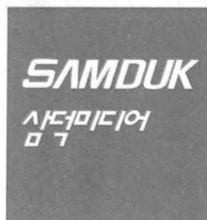
# 열린 마당

##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 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마켓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775 서울 중로구경운동88 수운회관1411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재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사터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775 서울 중로구경운동88 수운회관1411호  
전화:739-0180(代) 팩스:739-0160  
인쇄·재본공장:465-4707(代)